

## 마카오의 전기감전사고 방지책



장공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카지노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1553년 포르투갈에 무역을 처음 허용했다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포르투갈에 점령당했고 급기야 1888년에는 포르투갈의 식민지 지배가 완전히 합법화되었다.

그 후 110여 년이 지난 1999년 12월 20일에 중국으로 반환되어 지금은 중국의 특구(特區)로 되어있어 군사·정치적인 것을 빼고는 과거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흔적인 세나도 광장, 성 도미니코 성당, 성 바오로 성당(성 바울 대학의 일부) 등은 세계적 유산이 되었으며 해마다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포르투갈이 이곳으로 전해 온 건축과 예술로 인해 마카오는 아시아의 작은 유럽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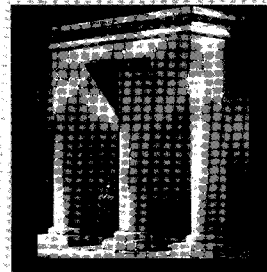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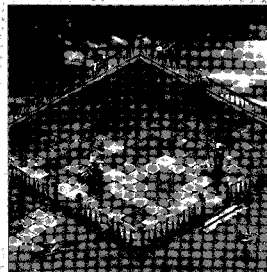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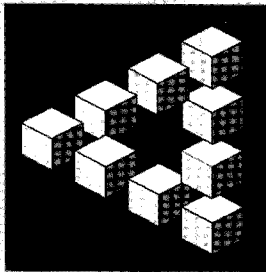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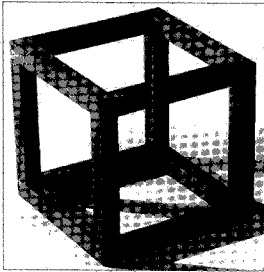
포르투갈이 이 마카오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1999년 12월 이전-의 일화이다.

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금만 건너가면 차이나타운이 있다. 우리나라에 살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정책으로 인해 성공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야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중국인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못했지만, 포르투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화교들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여 살고 있다.

그러나 마카오에 사는 화교들은 교육의 기회나 학교에서의 교육 과목 등에서 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활동에서도 불이익을 많이 받아서 사회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오죽하면 폐쇄적인 공산국가 시절임에도 등소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보이나 자세히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림들. 우리가 이 그림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평 주식어 자기 교포들이 보따리 밀수를 해서라도 먹고 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세관 검사를 대충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물론 마카오 측의 세관원은 중국 본토를 왕래하는 모든 중국인들을 살살이 검사하여 보따리 밀수를 막으려고 애썼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마카오의 중국인들이니 집안의 살림살이나 가옥들의 여건이 좋을 리 만무했다. 전형적인 차이나 타운 구조를 갖고 있는 그곳에는 고압 전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마카오 당국은 전기 에너지를 아껴쓰기 위하여 전압을 400볼트를 공급했다.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의 손실은 적으나 사용자에게는 감전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 400볼트의 전압은 실로 위험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오는 날에 감전 사고를 당했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마카오 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마카오 당국은 국제사면위원회의

이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즉시 대책을 강구했다. 그 대책이란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차이나타운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 대책의 효과는 아주 강력하여(?) 감전사고는 완벽히(?) 막을 수 있었다.

최근에 통일과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사안, 4대강 사업, 반값 대학 등록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시작 및 퇴근 시간 앞당기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이슈 등 전 국민과 관련된 이슈로부터 해서 우리 업체에서는 구제역 이후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사료 내 항생제 사용금지 및 후속 대책, 농축산 관련 정부 기관 조직 개편 등 많은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한 반응은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데 공통점이 있다. 집행 당사자들은 국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편에서는 밥 그릇 챙기기라고 평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것들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이 아주 빨리 쉽게 만들어져 나온다는

“

진정으로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자세가 필요한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논의하여 올바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한국전쟁을 치르고 그 허기진, 그야말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시절을 지나온 우리가 아닌가? 내 밥 그릇 챙기기도 하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때다. 혼자 보다는 같이, 많이 가져서 보다는 함께 나누기에 행복한 것이기에.

”



문제를 해결한다는 우리의 대책들이 이런 것은 아닐까?

그 폐해가 더 크고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어느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가 인공관절 교체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이 끝난 후 그 환자는 의식도 다시 찾아보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상황을 묻는 가족들에게 이 의사가 자신 있게 한 대답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

니다.”였다.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수술이 성공적이었더니!

것이다. 스피드 시대에 재빠른 반응은 필수적 덕목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밥 그릇 챙기기 위해서 내놓는 대책은 빠를수록

진정으로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자세가 필요한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논의하여 올바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한국전쟁을 치르고 그 허기진, 그야말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시절을 지나온 우리가 아닌가? 내 밥 그릇 챙기기도 하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때다. 혼자 보다는 같이, 많이 가져서 보다는 함께 나누기에 행복한 것이기에.